

##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김 은 경

(홍익대학교 교양과)

### 1. 서론

박경리 문학은 방대한 만큼, 그 방대한 문학을 이루는 각각의 작품들에서 생동하는 인물 개개인의 상황, 그 인물들이 다른 인물들과 맺는 관계의 망은 복잡하며, 그 복잡함 속에서 박경리 문학의 의미는 풍부하게 생성된다. 이러한 박경리 문학의 특질을 떠받치는 주요한 버팀목으로 ‘사랑서사’를 들 수 있다.<sup>1)</sup> 박경리 문학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

- 1) 여기에서 ‘사랑서사’란, 단계적 의미를 갖는다. 이의 기본 의미는 ‘제도적 규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남녀 간 사랑의 양태들’이다. 이러한 사랑서사는 제도적 규율이 적용되는 단계에서 크게 불륜관계와 결혼관계로 현상한다. 본고는 이러한 사랑서사를 통해 박경리 문학의 중요한 화두로 지적되곤 하는 ‘결혼·가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기에 담긴 여성주의적 통찰을 밝힐 것이다. 본고는 사랑서사를 “특수한 사회적 코드”로서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전대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랑서사에 대한 논의의 맥락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김윤식·정호웅(1999),

주제어: 사랑서사, 가족제도, 선택적 결혼, 여성주의적 대안.

The narrative on ‘love’, the family system, the selective marriage, the feministic alternative.

는 사랑서사는 박경리가 그녀의 작가정신을 표출하기 위해 활용한 주요한 ‘수사학’을 이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서사를 풀어갈 수 있는 언어에는, 크게 불륜, 결혼·가족이 있다. 이 각각에는 다시 사랑, 가족윤리, 가족제도, 젠더(Gender) 등의 언어가 결합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는, 사랑서사의 대부분이 불륜관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바람직한 결혼과 가족’에 반(反anti-)하는 불륜을 통해, 박경리는 ‘사랑’과 ‘가족’에 대한 성찰을 보이며, 이는 바람직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미 부여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랑서사의 양상들은 박경리 문학 전반에 걸쳐 동시적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륜과 바람직한 결혼·가족의 관계를 박경리 문학의 연대기적 흐름과 일치시켜 살필 수는 없다. 박경리 문학의 다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양자의 관계 또한 그녀의 문학 내에서 공존하면서, 이에 내포된 차이들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날 뿐이다. 박경리는 자신의 전 문학적 생애를 통해 대체로 불륜의 양상을 띠는 사랑(혹

---

『한국소설사』, 예하, 328쪽;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105쪽, 126쪽; 서영채(2002), 「韓國 近代小說에 나타난 사랑의 樣相과 意味에 관한 研究 : 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애정관계에 주목한 논저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이들 논저에는 낭만적 사랑과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제도 간의 충돌, 혹은 다양한 유형의 애정관계와 간통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 본고의 차이점으로 우선, 사랑서사의 입지를 들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서사를 살핀 기존 연구에서 사랑서사는 논의의 지향점이 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랑서사는 보다 확대된 논의를 위한 매개이다. 둘째, 본고는 특화된 개념의 ‘낭만적 사랑’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사랑과 결혼·가족의 문제에 대한 박경리의 생각을 에누리 없이 살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논의가 주로 여성인물의 입장에서 낭만적 사랑을 논의함과 달리, 본고는 불륜을 다루는 장의 논의에서 불륜주체들(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을 논의대상으로 하여 가족윤리와 가족제도에 대한 박경리의 보다 엄정한 관점과 젠더에 대한 인식을 살필 것이다. 유종호(1982),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김치수(1982),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恨」, 『박경리와 이정준』, 민음사; 우찬재(1995), 「지모신(地母神)의 상상력과 생명의 미학」, 『한·생명·대자대바-토지비평집 2』, 서울출판사; 채희운(1995), 「『토지』에 나타난 간통(姦通)의 생태학」, 위의 책; 이덕화(2000), 『박경리와 최명희-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은 사이비 사랑)과 가족의 문제를 고구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박경리 문학의 복잡함을 낳는 사랑서사를 불륜, 사랑, 결혼·가족, 가족 윤리, 가족제도, 젠더 등의 어휘를 갖는 언어로 정리할 수 있을 때, 박경리 문학의 복잡함 가운데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그 법칙성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서사의 복잡함 속에 담긴 의미를 체계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사랑과 결혼의 가치가 미분화(未分化)되었는지, 혹은 분화(分化)되었는지는 박경리 문학에 나타나는 사랑서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랑과 결혼이 각각 서로에 대한 필요조건 혹은 충분조건임을 전제하고 사랑서사가 펼쳐진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불륜에 대한 서사가 함의하는 바를 가족윤리, 가족제도의 문제와 결부하여 살필 것이다. 한편, 박경리의 사랑서사는 여성인물들에게 있어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분화(分化)됨으로써 오히려 두 개의 가치가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 여기에서 박경리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sup>3)</sup>

2) 본고는 단편소설을 제외한 박경리 문학 전반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단편소설에서 또한 사랑서사가 나타나지만,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장편소설 양식을 통해 사랑서사의 복합적 특질이 잘 드러난다고 판단하여 본고는 『토지』를 포함한 박경리의 중·장편소설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이 글에서 논의대상으로 한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서 상술한다. / 『애가』(1958), 『재귀열』(1959), 『표류도』(1959), 『성녀와 마녀』(1960~1961), 『푸른 운하』(1961), 『내 마음은 호수』(1961), 『김약국의 딸들』(1962), 『가을에 온 여인』(1962~1963), 『재혼의 조건』(1962~1963), 『녹지대』(1965), 『영원한 반려』(1967), 『나비와 영경귀』(1969), 『창』(1970), 『단층』(1974), 『토지』1~16권(1969~1994).

3) 본고는 박경리가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분화(分化)된 가운데 맺어지는 결혼관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엥겔스의 예측과 배치된다. 엥겔스는 일부일처제의 기원을 살피는 글에서, 사랑과 결혼의 관계가 분화(分化)에서 미분화(未分化)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결혼이 오래 동안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고려가 제외되었을 때에야 상호 간의 애정 이외에 다른 아무런 동기도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결혼이 이루어질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랑서사가 궁극적으로 ‘가족제도’와 ‘가족’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며 여기에 젠더에 대한 인식이 자리함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사랑서사에 ‘낭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박경리 문학이 낭만주의에 경사된 것으로 보는 입장과 시각을 달리한다.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서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륜의 문제를 해부함으로써, 여기에 가족윤리와 가족제도에 대한 ‘사실주의적’ 통찰이 나타남을 살필 것이다.<sup>4)</sup> 또한 불륜관계를 통해 ‘낭만적 사랑’<sup>5)</sup>의 한계를 살피고, ‘가족제도-내-남편 혹은 아내’라는 입지가 각각

---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 엥겔스, 김대웅 역(1999),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도서출판 아침, 88-109쪽.

- 4) 박경리 문학에 불륜관계를 다룬 서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는 점은 박경리 문학만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 활동 시기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박완서 문학과 대비를 통해 선명해진다. 박완서 문학 또한 ‘가족’의 문제를 중요시하지만 불륜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가족제도 내부에서 그 자체의 모순을 파헤침으로써 그것의 균열과 그것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준다. 여기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개재한다. 이와 달리 박경리 문학은 (제도적 규율 적용 이전-제도적 규율 적용-제도적 규율 순응)의 단계적 함의를 갖는 사랑서사를 통해, 가족제도 내부와 외부 간 교란 양상, 가족제도 내부로의 이상적 진입 양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랑, 결혼·가족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김은경(2010),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5. / 사랑서사의 양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불륜은 박경리 문학에서 가족제도와의 관계에서 전복적 성격을 지니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이 박경리 문학의 사실주의적 특질과 관련됨을 밝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와 상이한 입장에서 불륜의 문제를 파악한 Tanner의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그는 서양 부르주아 소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간통의 전복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T. Tanner(1979), *Adultery in the Novel-Contract and Transgression*,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5)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은 기든스의 ‘낭만적 사랑’의 개념 가운데 ‘영원한’, ‘하나뿐이며 유일’하다는 특성과 일치한다. 본고가 제시하는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개념은 일반적 의미의 낭만적 사랑보다는 그 개념이 특화된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박경리 소설이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제도권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연인들이 상호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

불륜의 문제와 상이하게 결부되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상은 2장에서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토대로, 박경리 문학이 제시한 이상적인 결혼의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이를 ‘선택적 결혼’으로 명한다. 여기에는 경제력을 갖는 여성인물의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통해 박경리가 사랑과 가족제도의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을 제시함을 살필 것이다.<sup>6)</sup> 또한 ‘사랑-결혼-가족’ 간 가치의 미분화(未分化)가 불륜을 낳은 것과 달리, 양자의 가치를 분화(分化)함으로써, 오히려 결혼을 통해 ‘사랑’과 ‘가족(제도)’ 간 교집합을 생성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 2. ‘불륜’ 양상을 통해 살핀 ‘사랑-결혼-가족’간 관계의 변주들

박경리의 사랑서사에 나타나는 불륜은 그 양상에 따라, ①혼사장애형 불륜, ②애정형 불륜, ③이익·애욕추구형 불륜, ④근친형 불륜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7)</sup> 이 가운데 ③의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제외한 나머지

fication)를 이루는 사랑으로서, ‘영원한’, ‘하나뿐이며 유일’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A. Giddens, 배은정·황정미 역(2003),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6) 여기에서 ‘선택적 결혼’이란, 우선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를 분화(分化)하여 후자를 우위에 둔다는 측면에서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택적 결혼’은 여성인물이 결혼의 주체로서 자신의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나아가서 여성인물이 결혼제도에 동참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선택적 결혼’을 통해 박경리는 경제력과 가부장제의 관련에 대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 가부장제의 기원과 역사를 논의한 Lerner는 남성의 계급지위는 그의 경제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여성의 지위는 그녀의 성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에노 치조코 또한 가부장제를 물질적인 기반을 갖춘 성지배의 구조로서 정식화한다. Gerda Lerner, 강세영 역(2004),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188쪽; 우에노 치조코(上野千鶴子), 이승희 역(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64쪽.

7) 네 가지 불륜의 유형들은 박경리 문학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불륜 양상들에서는 불륜 주체들의 쌍방 간 혹은 일방적 사랑이 개재(介在)한다. 박경리 소설에서, 이러한 ‘사랑’이 그 자체로서 문제시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박경리의 사랑서사들은 가족적·사회적 관계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①의 혼사장애형 불륜에서 유일하게 ‘낭만적 사랑’의 실체와 한계를 해부한다. 더불어서, 혼사장애를 낳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2.1). ④의 근친형 불륜은 주로 형수가 시동생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불륜인 바, ‘형수’에게 이러한 근친형 불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2.2). 마지막으로, ②의 애정형 불륜과 ③의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통해서는 불륜의 문제가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에게 각기 상이하게 적용됨을 살필 수 있다(2.3). 이러한 불륜의 양상들을 통해 박경리 소설이 낭만적 사랑의 비현실성을 적시함을 밝힐 것이다. 또한 여성인물이 가족제도-내-존재에 머무는 것과 달리, 남성인물에게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삶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사랑서사의 주제가 젠더의 문제와 관련됨을 논할 것이다.

## 2.1.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 미분화(未分化)와 가족윤리의 문제

박경리 문학을 대표하는 사랑서사는 단연 『토지』(1969~1994)의 이용과 월선의 이야기이다. 이들의 사랑서사는 <혼사장애-이별-제3의 인물과의 결혼-첫사랑의 인물과 재회-불륜(파국)>의 틀로 전개되며, 본고는 이를 ‘혼사장애형 불륜’으로 칭한다. 박경리 문학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것으로서, 박경리 문학에서 불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불륜을 소재로 한 사랑서사를 통해 박경리는 가족제도 내부와 외부 간 충돌을 그림으로써 ‘낭만적 사랑’을 부정함과 아울러 가족제도와 젠더의 문제를 결부한다. 3장과 달리 여러 개의 하위 절과 항으로 이루어진 2장의 체계는 이러한 박경리 문학의 특질과 관련을 맺는다. 필자는 박사논문에서 네 가지 불륜의 유형들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김은경(2008), 「박경리 문학 연구 -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리한 틀로 전개되는 사랑서사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살필 수 있는 작품에, 『애가』, 『성녀와 마녀』, 『내 마음은 호수』, 『김약국의 딸들』 등이 있다. 『토지』를 비롯한 이들 작품에서, ‘하나뿐이며 유일한’ 사랑, 즉 ‘낭만적 사랑’을 다루고 있는 바, 『토지』를 제외한 그 이전의 작품들은 모두 파국적 결말을 맺는다. 본 절에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차이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이다. 이 과정에서 <혼사장애-이별-결혼-재회-불륜(파국)>의 서사구조에 담긴 의미에 주목할 것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혼사장애형 불륜은 “사랑하면 결혼한다.”는 전제, 즉 결혼을 사랑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입장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연인 상호 간의 영원하고 유일한 사랑, 즉 ‘낭만적 사랑’이 자리한다. 박경리는 진정한 연애의 경지가 예술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극히 희귀한 것이라고 한 수필에서 밝힌 바 있는데,<sup>8)</sup> 실제로 혼사장애형 불륜을 다룬 작품들에서는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과의 결혼에 좌절된 결과 발생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유일한 사랑의 완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한 혼사장애형 불륜의 파국적 결말은 박경리의 연애관을 반증함과 아울러, ‘사랑-결혼’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불합리한 혼사장애, 가족윤리의 침해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자리한다.

우선, 혼사장애형 불륜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혼사장애-이별>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양공주의 이력, 나쁜 피, 부모가 정한 혼처, 센 사

8) 다음에서 박경리의 연애관을 살필 수 있다. (인용) “연애의 경지, 그것은 예술 이상의 경지를 말한다. 예술은 인생의 모방이니까. (……)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연애란 극히 희귀한 것인 성 싶다. 갈구하면서도 좀처럼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연애라 생각한다. 문학작품이나 영화 그 밖의 예술에도 그 주제는 언제나 인간들의 애정의 사실(寫實)이라 볼 수는 없다. 이상화된 것이 그 대부분이요 또 예술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윤색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박경리(1981), 「참다운 연애의 의미」, 『Q씨에게』, 지식산업사, 328-329쪽.

주, 무녀의 신분 등이 연인들을 갈라놓는 혼사장애로 나타난다. 『애가』에서 김진수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미군에게 강간당한 뒤, 양공주로 일한 이력을 갖는다. 연인 이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그녀는 이민호의 곁을 떠난다. 『성녀와 마녀』에서 오형숙은 생모 오국주가 희대의 탕녀였음이 드러나면서, 연인 안수영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내 마음은 호수』에서 이영설과 유혜련은 이영설의 부모가 정한 혼처가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사건들로 인해 결국 이별하게 된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숙정은 센 사주로 인해 첫사랑 송욱이와 맺어지지 못하며, 『토지』의 이용과 월선은 상민과 무녀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별을 겪는다.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불륜을 낳는 혼사장애들은 미신을 포함한 사회적 통념, 신분제도 등 극복되어야만 할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들 혼사장애에는 우선, 불합리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혼사장애형 불륜을 낳는 이들 혼사장애를 통해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sup>9)</sup>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사장애>에 뒤이은 사건전개를 통해, 박경리 소설의 이에 대한 접근 양상을 살필 것이다.

<혼사장애>에 뒤이은 <제3의 인물과 결혼-재회-불륜>의 서사 전개에 대해 살펴보자. 혼사장애로 연인과 이별한 다른 한 명의 연인은 제3의 인물과 결혼한다. 그런데 헤어진 옛 연인과의 재회는 결혼한 연인이 결혼생활 전 과정을 부정토록 하며, 과거의 연인들끼리 불가피하게 불륜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 즉, 혼사장애형 불륜이 야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륜 주체들의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에 대한 추구가 자리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박경리의 초기작인 『애가』에서부터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민호는 자신을 사랑하는 문설희와 결혼하지만, 김진수와 재회하였

9) 이는 ‘유일한 대상’에 대한 상호 쌍방적 사랑(연애), ‘유일한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 사랑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미분화(未分化)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자리한다.

을 때 문설희와의 3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부정하게 된다. 문설희가 김진수를 대체하는 존재였을 뿐임을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김진수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며, 문설희와의 이혼을 고려한다. 이민호를 통해 사랑하는 그 ‘유일한 사람’과의 결합만을 추구하는, 사랑과 결혼의 가치가 미분화(未分化)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성녀와 마녀』의 안수영과 오형숙에게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 오형숙의 “나쁜 피”가 혼사장애가 되어 이별한 후, 안수영은 자신을 사랑하는 문하란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오형숙은 외국유학을 떠난다. 그런데 오형숙이 아닌 문하란과 맺어진 안수영의 결혼은 “정상의 것이 아”(253)<sup>10)</sup>닌 것으로 아버지 안원석에게 인식되어진다. 안수영은 문하란에 대한 “애정이 아닌 정욕”(253)을 느껴 문하란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귀국한 오형숙과 재회하였을 때, 안수영은 아내 문하란과 딸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오형숙과 결합할 결심을 하며 그녀와 불륜관계를 맺는다. 『애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사람과의 단 하나의 사랑이 안수영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처럼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추구하게 될 때,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미분화(未分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륜>의 결과를 통해, ‘낭만적 사랑’이 ‘가족윤리’와 대결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혼사장애형 불륜은 불륜주체가 사랑-결혼-가족의 가치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배우자의 사랑>과 가족의 관계>를 저버림으로써 발생한다. 여기에서 가족윤리를 문제 삼게 되는데, 박경리 소설은 <불륜>에서 <파국>으로 이어지는 서사 전개를 통해 ‘낭만적 사랑’과 ‘가족윤리’의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인다. 『애가』는 이민호의 아내인 문설희가 자살함으로써, <파국>적 결말을 맺는다. 이민호는 혼사장애로 끊긴 김진수

10) 이하 작품 인용면수는 인용문 끝에서 (인용면수)로 표시한다.

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아내 문설희에게 김진수와의 불륜관계가 “이미 운명적인 것”(363)임을 선언하는데, 이어서 문설희가 자살을 결행한 것이다. 이는 이민호에게 깊은 죄의식을 안겨 주며, 김진수는 이민호 곁을 떠나 외국행을 한다. 문설희의 죽음은 이민호-김진수의 ‘낭만적 사랑’이 가족윤리를 침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혼사장애형 불륜의 주체들은 이별하며, 부부관계는 사별로 끝맺음한 것이다. 『성녀와 마녀』 또한 <파괴>으로 끝나는 ‘낭만적 사랑’의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혼사장애형 불륜의 주체인 오형숙의 ‘죽음’은 가족윤리를 침해하는 ‘낭만적 사랑’의 성취를 막기 위한 서사적 장치(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품에서 박경리는 가족윤리를 침해하는 ‘낭만적 사랑’의 성취보다 그것이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제도에 의해 지탱되는 가족윤리가 부부애와 양립될 수 없을 때, 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혼사장애형 불륜을 통해 드러난다. 『성녀와 마녀』는 오형숙의 죽음 이후, 안수영과 문하란의 사랑 없는 부부관계가 가족제도-내의 질서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바,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다.<sup>11)</sup>

그런데 박경리의 소설은 혼사장애형 불륜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부애가 부재할지라도 가족(윤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내 마음은 호수』를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각기 ‘가족윤리’(유혜련)와 ‘낭만적 사랑’(이영설)을 앞세우는 두 인물의 혼사장애형 불륜을 그리고 있다. 가족제도 내의 불륜주체인 유혜련이 가족윤리를 앞세운다는 점, 문명구-유혜련의 부부관계가 불가항력적으로 결렬된 이후 다시

11) (인용) “오늘은 식당에서 모두 같이 저녁을 할 테니까.” “하란은 계집아이에게 말하고 고기를 썰었다. 저녁 식사 때 가족은 실로 오래간만에 식당에 모였다. 수영은 형숙의 영상을 안고 하란은 허세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이 상반된 인간과 인간이 모인 가정이란 질서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대면하는 것이었다.”(347).

시작하는 ‘낭만적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이 앞에서 살핀 작품들과 차별화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작품에서 가족윤리와 ‘낭만적 사랑’의 문제에 보다 엄정하게 접근하기 위한 바탕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혜련의 남편 문명구가 납북되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혜련과 이영설의 혼사장애형 불륜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혼사장애형 불륜의 파괴력을 완화하고 보다 엄밀하게 가족윤리와 낭만적 사랑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낭만적 사랑’을 실현코자 하는 이영설과 사라진 남편 문명구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 하는 유혜련의 대결은, 불륜주체들 간의 그것이기에 양자의 가치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객관적으로 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유혜련의 결단과 뒤이은 죽음을 통해, 낭만적 사랑과 가족윤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유혜련이 이영설의 구애를 받아들인 것은 그녀가 심장 판막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예감하면서부터이다. 유혜련은 이영설과의 낭만적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야, 그의 구혼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혜련이 “불행했던 남편 문명구”에 대한 “의무”(59)를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진수의 존재를 통해 이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혜련은 유서에서 문진수가 이영설의 딸임을 밝힌다. 죽음의 순간에 이영설과 문진수가 가족임을 시인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의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진수가 문명구와의 약속대로 문명구의 딸로 존재할 동안, 즉 유혜련이 죽을 때까지 그녀는 남편 문명구와의 가족윤리를 지킨 것이다.

이상 혼사장애형 불륜을 통해, 인물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가족윤리와 낭만적 사랑이 대치될 때 가족윤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살폈다. 『애가』, 『성녀와 마녀』, 『내 마음은 호수』 등 논의한 작품은 모두 혼사장애형 불륜에 연관된 인물의 죽음, 즉 파국으로 끝을 맺는 바, 이는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이란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유일하게 이를 ‘예술적으로’ 구현한 경우가 『토지』의 이용과 월선의 혼사장애형 불륜이다.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지 않고 지속되며, 아름답게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이용에 의해 가족윤리의 준수와 침해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제도 밖의 불륜주체인 월선이 경제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용에 의한 가족윤리의 준수란,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는 것(강창덕), 자식을 낳아 준 여자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임이네)이다. 가족윤리의 침해란, 이들과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월선과 불륜의 연애를 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전자가 후자를 유발하는 플롯으로 이용과 월선의 혼사장애형 불륜을 전개함으로써, 불륜의 문제성을 희석한다. 또한, 『토지』는 강창덕과 임이네를 각각 가족제도 내에서 큰 결함을 지닌 인물 - 강창덕은 투기와 불임, 임이네는 탐욕의 화신 - 로서 성격화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이용과 월선이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불어서 이들의 불륜관계가 월선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가족제도 외부의 불륜주체인 여성(월선)이 가족제도 내부의 불륜주체인 남성(이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사랑에, 특히 가족제도-외부의 불륜주체인 월선에게 다른 의도가 섞이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그 문제성이 희석되어 ‘예술적으로’ 구현된 이들의 ‘낭만적 사랑’은 제도권 밖의 불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sup>13)</sup>

12) 『토지』이외의 『애가』(김진수), 『표류도』(강현희), 『영원한 남편』(신병희) 등의 작품들에서도 사랑에 기초한 불륜 주체에게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이 이루어짐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이들 불륜 주체의 사랑이 ‘불륜’이라는 사실 이외의 다른 의도(불순물)가 섞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이와 관련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혼인”이란 경제적 고려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고 본 엥겔스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E. 엥겔스, *Op.cit.*, p. 109.

13) 월선이 병으로 죽음을 맞을 때까지 아름답게 꽃을 피운 이들의 사랑은 제도권 밖에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박경리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자, 제도권 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려진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박경리의 이와 같은 접근은 ‘사랑-결혼·가족’의 관계를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 2.2. ‘근친형 불륜’과 금기 위반의 의미

박경리의 소설에는 형수와 시동생 간의 ‘근친형 불륜’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애가』, 『재귀열』, 『내 마음은 호수』, 『가을에 온 여인』, 『녹지대』, 『토지』 등의 작품에서 ‘근친형 불륜’이 나타나는 바, 『토지』를 제외한 작품들에서 이는 형수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는 형수와 시동생 간의 불륜이기에, 동일한 혈통 내에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근친상간’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친형 불륜’ 또한 금기에 해당하므로 금기의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접근코자 하며, 근친혼의 관습을 참고할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근친형 불륜’은 이를 주도하는 인물인 ‘형수’가 미망인이거나, 혹은 그 밖의 이유로 가족제도 내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여성인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친형 불륜’을 통해, 여성인물에게 있어 ‘사랑-결혼·가족’의 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놓였기에 보다 지고지순할 수 있었다는 평이 작품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와 ‘자연과 재생산의 사회화 과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한 기든스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양자의 관계가 반드시 조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A. Giddens, *Op.cit.*, p. 258.

14) 박경리의 소설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근친적 애정관계’가 나타난다. 그런데, 근친 내에서의 불륜은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를 통해서만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근친형 불륜의 금기 위반은, 이를 주도하는 인물인 형수가 사랑-결혼·가족 간 가치의 미분화를 왜곡된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여성인물에게 있어 사랑과 결혼·가족 가치 이외의 선택항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전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근친형 불륜’은 용어가 뜻하는 바대로 ‘가족제도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형수가 주도한 ‘근친형 불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혹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형수’란, 사랑하는 대상 혹은 사랑이 결핍된 존재이다. 이로 인해 가족제도 내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처지의 형수가 ‘시동생’에게 동물적 혹은 감정적 연정을 품는다는 것은 그 ‘시동생’을 통해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동시에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수’의 시도는 그녀에게 ‘사랑과 가족’ 이외의 선택항이 없다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근친형 불륜’은 ‘사랑-결혼-가족’간 가치의 미분화(未分化)가 왜곡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근친형 불륜은 박경리의 첫 장편소설인 『애가』에서부터 나타난다. 시인으로서 주요 인물들의 사랑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윤상화와 그의 형수인 영옥의 관계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쌍방 모두의 관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지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영옥이 “동물적인 애정”을 가지고 시동생인 윤상화를 대한 것과 달리, 윤상화는 영옥에 의해 촉발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서만 영옥과 관계를 맺는다. 또한, 영옥은 윤상화와 도망하여 함께 살기를 원한다. 윤상화는 영옥이 친정에라도 가서 ‘배륜(背倫)’이 끝나기를 원한다. 영옥의 입장에서 이들의 근친형 불륜을 볼 때, 이는 가족제도-내-존재인 영옥이 남편과의 사별로 그 가족제도 내에서 무관해진 ‘사랑-결혼-가족’의 관계를 시동생 윤상화를 통해 다시 공고히 하려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윤상화는 영옥에게 왜곡된 방식일지라도 사랑과 가족,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존재인 것이다. “아름답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한”(290) 형수 영옥이 사별한 남편의 집, 즉 시댁에 남거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외의 선택항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와 관련을 맺는다.

『애가』에서 형수 영옥이 시동생 윤상화에게 동물적 애정을 보인 것과

달리, 『재귀열』의 미망인 형수 선숙은 시동생 하영민을 통해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고, 그에게서 남편을 찾는다. 이러한 선숙의 하영민을 향한 근친형 불륜은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형수가 시동생을 통해 상실한 ‘사랑-결혼-가족’간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영민은 “형의 환상을 나에게서 찾는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으로 선숙을 대하면서, 결혼 전 촉망받는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에게 “자존심”과 “교양”, 그리고 “예술에 대한 정열”(319)을 찾아 주고자 한다. 선숙은 하영민의 이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는 바, 여기에서도 가족제도-내-존재에 머무는 선숙의 입지를 읽을 수 있다. 가족제도-내-존재로서 시동생을 통해 상실한 ‘사랑-결혼-가족’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던 선숙은 하영민이 김난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한다. 이 경우에서 또한 형수 선숙에게 사랑과 가족 이외의 선택항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내 마음은 호수』는 유혜련과 문명희를 통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생활은 삶 자체를 잃은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여기에 ‘사랑-결혼-가족’의 가치를 미분화(未分化)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한다 할 수 있다. 유혜련의 경우는 이영설과의 혼사장에형 불륜을 통해 살핀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문명희가 형수의 입장에서 주도하는 근친형 불륜을 살피기로 한다. 앞의 작품들과 달리, 근친형 불륜의 주체인 문명희는 남편 한석중이 생존하는 상황에서 한석중의 이종사촌인 송병림과 근친형 불륜을 펼친다. 한석중과 문명희의 관계에서, 한석중이 문명희를 깊이 사랑하는 것과 달리, 문명희는 “생활적인 면에서” “가장 알맞게 주판”(15)을 놓아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명희의 이와 같은 결혼생활은 송병림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부정된다. 한석중과 송병림이 인척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수 문명희가 시동생 송병림을 대상으로 근친형 불륜을 주도하여 금기를 위반하고 있음은 남편 한석중과의 결혼생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뜻한다.<sup>15)</sup> 문명희의 입장에서 근친형 불

륜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사랑-결혼·가족’ 간 가치의 합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도 ‘사랑-결혼·가족’ 간 가치의 미분화(未分化)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좌절하였을 때 문명회는 한석중과의 가족제도 내로 회귀하는데, 이는 S대학교 영문과를 중퇴한 그녀에게도 가족과 사랑 이외의 선택항은 없음을 보여준다.<sup>16)</sup>

『가을에 온 여인』 또한 오세정을 통해 ‘사랑-결혼·가족’을 미분화(未分化)된 가치로서 추구하는 양상을 나타내 보인다. 이 작품의 기본 줄거리는 연인과의 사랑에 좌절한 오세정이 왜곡된 방식의 결혼과 불륜을 통해, 실패한 사랑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죽은 연인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연인의 형인 강명하와 결혼한 오세정은 비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sup>17)</sup> 그녀는 과거의 연인과 닮은 가정교사 신성표를 통해, 연인과

15) 근친상간 금기가 가부장제(아버지의 법), 정치적 조직의 유지와 관련을 맺는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대어 볼 때, 문명회가 이의 위반을 시도하고 있음은, 한석중과의 결혼생활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reud, S., 김중업 역(1995), 『프로이트와 현대성』,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283-284쪽. / 다음의 인용문은 문명회의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다. (인용) “(명희 준에게) 왜 불행한 일이니? 결혼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야. 그까짓 게 사람의 마음을 영구히 얼어맨단 말이야? 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결혼조약을 파기하구 자유를 택할 테야. 난 자유야. 누굴 생각하구 사랑하건.” (87쪽) “(명희) (……) 나는 내 생애를 걸구 오늘 이 모험을 실행한 거예요.” “(명희) 언어도단이라구요? 사랑하는 감정을 누가 주셨을까……아마 신이 주셨을 거예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245쪽) “(……) 오늘 하룻밤만 내 생애를 갖게 해준다면 나는 아무런 회한도 미련도 없이 내 생애의 막을 내리겠어요(……)” “(병림) 형수씨, 이성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244쪽).

16) 이 작품의 결말은 본고 3장의 논의와 관련을 맺는다. 문명회는 송병림을 향한 사랑의 마지막을 겪은 이후, 한석중과의 가족제도 내로 회귀한다. 박경리는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이 아닌, ‘사랑의 실패’가 ‘사랑-결혼·가족’의 이상적 관계에 돌입하기 위한 통과례라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사랑의 실패’는 여성인물을 사회적-존재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17) 오세정과 강명하의 결혼은 情死를 시도하여 강명하의 동생, 즉 연인을 죽게 한 오

의 못다 한 사랑을 이어가고자 한다. 오세정은 신성표를 신성표로서가 아니라 옛 연인의 환영으로서 사랑하는 바, 오세정이 주도하는 신성표와의 불륜은 본질적으로는 근친형 불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금기의 위반을 통해 사랑이 없는 강명하와의 결혼생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사랑-결혼-가족’의 가치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오세정의 시도를 읽을 수 있다. 이에 좌절한 오세정은 자살을 택하는 바, 그녀를 통해서도 여성 인물에게 사랑과 가족 이외의 선택항은 없음을 엿볼 수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토지』에 나타난 구천(김환, 시동생)과 별당아씨(형수)의 근친형 불륜을 살피기로 한다. 이들의 근친형 불륜은 우선 형수 주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근친형 불륜들과 차별화된다. 『토지』에서 형수 별당아씨는 서사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sup>19)</sup> 그녀는 불륜의 주체라기보다 불륜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구천의 입장에서 별당아씨와의 불륜이 논의되어야 한다. 생모인 윤씨부인을 찾기 위해 최침판가에 몸담은 구천이 형수인 별당아씨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감정과 금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죄의식<sup>20)</sup>이 함께 한다. 그리

---

세정이 강명하를 통해 자신의 죄의식을 촉발토록 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오세정을 사랑하는 강명하는 오세정에게서 도발된 욕망을 불륜의 대상 석영희에게서 푸는 불구적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 18) 오세정은 상당한 재력가의 외동딸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남편 강명하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성표(시동생의 환영)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자살을 선택한다.
- 19) 구천과 별당아씨의 근친형 불륜은 ‘구천이’라는 이름의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구천의 과거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건이다. 따라서 별당아씨가 구천의 정체를 알았을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 20) ‘근친형 불륜’의 주체들은 모두 ‘배륜’ 혹은 ‘패륜’을 저지른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을 갖는다. 『녹지대』를 통해서도 근친형 불륜과 죄의식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녹지대』는 박경리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신문에 연재된 작품이며, 2011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관련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여자(익명)’는 강렬한 분위기로 인해 남편 민상진과 헤어진다. 이후 ‘그 여자’는 육촌동생 김정현이 친구를 과실치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는 대가로

나 구천의 (근친상간) 금기 위반은 그가 귀속되기를 희망한 가족(최참판가)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가 가족제도 외부의 불륜주체라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오히려 윤씨부인의 목인 하에 별당아씨와 도망함으로써, 구천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자식이 되며 형수인 별당아씨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즉, 그는 근친형 불륜을 통해 가족제도-내-존재가 된 것이다. 그런데, 별당아씨 사후, 구천은 동학장수 김개주의 아들 ‘김환’으로 등장한다. 『토지』는 ‘구천’을 ‘김환’으로 명명함과 아울러 그의 입지 또한 달라짐을 보여준다. ‘구천’이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입지를 구하고 이를 가진 것이라면, ‘김환’은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를 갖는다. 김환은 이후 구천이일 때 상실한 ‘사랑(별당아씨)-가족’을 대체할 어떤 대상도 갖지 않으며,<sup>21)</sup> 동학잔존세력을 이끄는 독립운동가로 남는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 근친형 불륜을 주도한 여성인물들이 ‘사랑-가족’ 이외의 선택항을 갖지 못한 것과 달리, 구천은 ‘사랑-가족’을 잃자 김환이라는 사회적-존재로 거듭난다는 점이다.

---

김정현에게 근친형 불륜을 강요한다. ‘그 여자’는 김정현에게 아무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채 그와의 근친형 불륜관계를 유지한다.> ‘그 여자’가 보다 큰 죄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근친형 불륜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한 데에서, 근친형 불륜에 대한 죄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여자’가 주도한 김정현과 ‘그 여자’ 간 근친형 불륜은 죄와 그 죄에 대한 인식, 즉 죄의식을 악용한 결과라 하겠다. 박경리(2011), 『녹지대 1~2』, 서울: 현대문학.

- 21) 최치수 별당아씨-구천의 관계에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구천과 동학장수 김개주의 아들 김환을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별당아씨-구천 간 근친형 불륜의 전복적 성격을 아버지의 법의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석사논문에서 별당아씨-구천 간 근친형 불륜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별당아씨-구천 간 근친형 불륜이 ‘낭만적 사랑’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본다. 별당아씨 사후 구천이 인이 아내의 구애를 뿌리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김은경(2000), 『『토지』서사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3. 사랑의 부재로 인한 불륜과 ‘가족제도’의 문제

혼사장애형 불륜을 통해 ‘사랑-결혼’의 가치가 미분화(未分化)된 상태, 즉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살폈다. 근친형 불륜은 미분화(未分化)된 ‘사랑-결혼’의 가치를 왜곡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주로 형수 주도로 전개되는 근친형 불륜을 통해 여성 인물의 입지가 가족제도-내-존재로서 제한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애정형 불륜’과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논의하겠는 바, 이는 앞에서 논의한 불륜의 유형들 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sup>22)</sup> 이 두 가지 유형의 불륜은 가족제도 내의 부부 쌍방 간(혹은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부재함’에서 비롯한다. 애정형 불륜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주도로 전개되는 불륜이며, 불륜주체가 가정으로 회귀하는 결말을 맺는다.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은 부부애가 결여된 아내가 주도하는 불륜으로서, 불륜이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임을 나타내 보인다. 두 유형의 불륜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남성인물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를 갖는 반면, 여성인물이 가족제도-내-존재로서 머문다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가족제도-내에서 부부애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들 불륜 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족제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2.3.1. 수단으로서의 결혼과 ‘가족제도-내-남편’의 위치

『표류도』, 『영원한 반려』, 『나비와 영정귀』, 『창』 등의 작품을 통해 가족제도 내의 남성인물과 가족제도 외부의 여성인물이 주도하는 애정형 불륜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결혼(사랑부재의 결혼)-남

22) 혼사장애형 불륜은 가족제도로의 진입 불가능으로 인한 불륜, 근친형 불륜은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위기)로 인한 불륜이다. 이에 비해 애정형 불륜,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은 가족제도 내의 부부에 자체를 문제 삼기에 보다 적극적 의미의 불륜이라 할 수 있다.

편의 불륜-가족제도 내로 회귀(파국)<sup>23)</sup>>의 서사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애정형 불륜은 ‘가족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혼사장애-이별-결혼-재화-불륜-파국>의 서사구조로 전개되는 혼사장애형 불륜이 혼사장애로 이별한 연인 간 ‘낭만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본 절에서는 ‘애정형 불륜’의 서사전개 양상이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우선, 『표류도』의 이상현을 통해 애정형 불륜이 <회귀(파국)>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가족제도-내 불륜주체(남편)가, ‘수단’으로서 결혼관계를 맺었으며, 애정형 불륜을 통해 ‘낭만적 사랑’을 실현코자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표류도』의 이상현은 애정형 불륜의 대상인 강현희에게 “애정하고 생활이 결합되지 못한 결혼”(4회, 151쪽)의 불행함을 토로한다. 이상현과 “유명한 집안의 따님”(6회, 152쪽)인 그의 아내 양수정의 결혼은 배우자 쌍방 간 ‘계층의 균형’을 취하여 맺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현은 양수정과 결혼관계를 파하고 계층적으로 “극단과 극단의 결합”이 될 강현희와의 결합을 추구한다. 아내 양수정이 계층적 균형을 만족시키는 존재라면, 강현희는 애정과 생활이 함께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류도』는 수단으로서 맺어진 결혼관계에, 아내인 양수정 편에서 ‘부부애’가 싹틀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sup>24)</sup> 이상현과 강현희의 불륜관계는 <파국>으로 끝을 맺는다. 강현

23) 여기에서 <회귀>는 가족제도-내 불륜주체인 남편의 가족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파국>은 가족제도-외부 불륜주체로서 남성 불륜주체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성 불륜주체가 맞는 애정형 불륜의 결말이다. 남성인물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여성인물들은 살인, 중병, 자살 등의 파국적 결말을 맺는다.

24) 이상현은 강현희를 향한 ‘낭만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양수정과의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에 대해 그의 친구 김환규는 이상현의 강현희를 향한 열정이 꿈에 불과하며, 이상현이 결코 그 자신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인용) “상현이는 자기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집안의 따님이죠. 상현이

회가 우발적 살인을 함으로써 이다. 강현회는 이상현 집 정원의 단란한 풍경을 목도한 당일, ‘다방의 마담’인 자신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최강사를 살해하게 된다. 이전에 본 정원의 풍경이 강현회로서는 범접하기 힘든 ‘가족제도-내’의 그것이라면, 거래의 수단이 된 ‘마담’으로서의 강현회는 ‘가족제도-외부’의 존재인 것이다. 최강사 살해는 전자에서 촉발된 감정이 후자에 의해 증폭되어 발생한 것이다. 강현회의 입장에서 이상현과의 애정형 불륜은 <과국>을 맞는 바, 이는 박경리가 가족제도의 존속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강현회로 하여금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입지를 열망토록 한 이상현 가정의 단란함이 부부애라는 내실을 갖추지 못한 것일지라도 사랑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할 수 없음을 『표류도』의 서사구조는 보여준다.

『창』을 통해서만 사랑이 부재한 결혼관계 내의 ‘남편’에게 있어 ‘가족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친구 사이인 맹시현과 하상호의 삶의 역정은 대비된다. 맹시현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애정형 불륜의 대상인 송가화를 택한다. 학병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격다짐”(50쪽)으로 결혼한 아내 김정자와 이혼하고, 생애 최초로 사랑하게 된 송가화와 결합하려 하지만, 결국 가족(김정자와 아들)과 연인 모두를 잃게 된다. 이후 맹시현은 ‘가족제도-내-남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 이와 달리, 하상호는 맹시애와의 첫사랑에 좌절하자, 이봉희와 결혼한다. 이봉희가 하상호의 수려한 이목구비에 반하여, “막대한 부모의 재산과 더불어” 하상호와 결혼한 것이라면, 하상호는

---

는 그러한 모든 유명한 것에 구토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토를 느끼고 혐오하는 그 요소는 바로 자기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상현이는 과거 항일운동에 앞장 선 일도 있고 현재도 붓을 휘두르며 민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한 열정과 현회 씨에 대한 애정, 그것은 다만 꿈의 표현일 뿐입니다. 결코 자기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뜻으론 현회 씨하고는 극단과 극단의 결합이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결혼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회, 152쪽)

“유리한 방향으로 휘어드는 삶에의 지혜”(74쪽)를 발휘하여 맹시애를 버리고 이봉희와 결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상호는 사업가로서의 사회적 삶을 위한 기반을 이봉희와의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다. 하상호 앞에 맹시애가 다시 등장하였을 때, 하상호-맹시애 간의 ‘애정형 불륜’이 전개되지만, 하상호는 맹시애와의 불륜이 아내 이봉희에게 발각되자 아내와 이룬 가정을 택한다. 하상호에게 있어 이봉희는 “오늘의 지위, 오늘의 재물, 오늘의 안온한 생활”(323쪽)을 의미한다. 이는 ‘애정형 불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단’으로서의 결혼을 통해 얻은 가치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가족제도-내-남편의 위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삶과 맞물림을 알 수 있다.

『영원한 반려』에서 또한 성민수를 통해 사회적-존재로서의 삶의 기반이 되는 가족제도-내-남편의 지위를 유지하는 애정형 불륜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성민수의 김수정과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의 기반을 얻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려진다. 실제로 성민수의 아내 김수정은 육영사업을 하는 유력한 집안의 딸인 바, 성민수에게 있어 김수정과 이룬 가정은 그의 “순조로운 정치적 기반의 한 모서리를 떠받쳐 주”(199쪽)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민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만난 신병희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애정형 불륜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아내 김수정과 연인 신병희를 놓고 성민수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한 여자를 위한 따뜻한 사랑”(207쪽)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두 번에 걸쳐 맺은 신병희와의 애정형 불륜관계에서 모두 야망을 선택한다.<sup>25)</sup> 즉, 사회적-존재로서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얻기 위해, 이를 구할 수 있는 가족제도-내-남편의 위치를 고수함과 더불어 사랑을 포기한 것이다.

25) 이 작품에서 신병희는 성민수를 향해 불륜의 한계를 지닌, ‘낭만적 사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병희는 자신의 결혼 전과 남편과 사별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성민수와 애정형 불륜관계를 맺는다. 남편을 사랑할 수 없었던 신병희는 성민수를 향한 유일한 사랑을 간직한다. 그녀는 성민수로부터 두 번째로 버림받은 이후 자살하다.

이와 같은 애정형 불륜들을 통해 남성인물(남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사랑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삶의 밑바탕이라는 측면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가정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나비와 영경귀』에서 가족제도-내-남편에게 가정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사회적인 성공의 야망이 강한 정양구는 아내 강은애와의 결혼생활이 단지 자신의 사회적 삶을 뒷받침하는 “생활의 질서”(122쪽)를 유지시켜 주는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애정형 불륜의 대상인 남미에게 “상당히 짙은 농도의 애정”(119쪽)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강은애와의 생활의 질서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정양구는 정신병력이 있는 강은애가 발병하였을 때, 가정에 밀착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애정형 불륜의 대상인 남미를 버리게 된다. 여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 정양구는 강은애의 정신병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강은애의 존재 의미를 “내 아이들의 어머니”(136쪽)라는 데에 부여한다. 정양구를 통해서도 가족제도-내-남편에게 있어 가정은 사회적-삶을 뒷받침하는 곳으로서 의미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 가정은 자녀를 생육하는 곳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 절에서 여성 불륜주체의 관점에서 살필 이익·애욕추구형 불륜과 대비되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박경리의 젠더에 대한 인식(認識)을 엿볼 수 있다.

### 2.3.2. 수단으로서의 불륜과 ‘가족제도-내-아내’의 위치

본고가 분류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네 가지 불륜 유형들 가운데 애정형 불륜과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은 대칭적인 의미를 갖는다. 애정형 불륜을 통해 가족제도-내-남편의 위치를 살펴보았는 바,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통해서도 가족제도-내-아내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 가족제도-

내-남편에게 가정은 사회적-삶의 밑바탕이자 재생산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불륜관계에서 사랑을 느끼지만,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가정을 선택한다. 한편, 박경리 소설은 가족제도-내-아내에게 있어서 결혼과 가정이 갖는 의미는 다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은 가족제도-내-존재인 아내가 가족제도 내에서 채우지 못한 욕망(야망)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때,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는 포기될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애정형 불륜을 주도하는 남성인물의 ‘결혼’이 수단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이익·애육추구형 불륜관계를 맺는 여성인물에게는 ‘불륜’이 수단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살필 수 있는 작품에는 『푸른 운하』, 『창』, 『토지』 등이 있다.

허영을 좇아 남편과 아이를 버린 『푸른 운하』의 경란을 통해,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이 여성인물에게 갖는 이와 같은 의미를 살펴보자. 경란은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는 남편 이치윤과의 삶에서 “어쭙잖은 가정의 수지를 따져가는 생활을 경멸”(235쪽)하여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좇아 불륜관계를 맺는다. 그녀는 이치윤과 혼인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무역관계”(76쪽)일을 하는 양민의 물질적 선물공세를 받아들여 결국 가정을 등지게 된다.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헌신짝처럼 버리고”(80쪽), 즉 가족제도-내-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방기하고 물질적 풍요를 좇은 것이다. 또한 그녀는 국회의원의 정부가 되어 권력의 어두운 면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치윤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소송 과정에서 H의원을 통해 정치깡패를 동원, 자신에게 이로운 이혼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경란은 “지독한 에고이스트”(98쪽)로 평가되는 바, 불륜을 통해 아내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리까지 외면하고 있음은 애정형 불륜의 주체인 가족제도-내-남편의 선택과 대비되는 바이다. 또한 『푸른 운하』는 경란의 불륜행각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얻고 권력의 편에 서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이 여성인물에게 있어서 ‘수단’의 성격을 띠음을 알 수 있다.

『푸른 운하』의 경란이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통해 아내-어머니의 지위를 버리고 ‘정부’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라면, 『창』의 이지숙은 이익·애욕추구형 불륜관계가 결렬되자, 명목상의 아내-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지숙은 재력가인 김재경의 후취로서 열여덟의 연령 차이가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만, 맹시현과 불륜관계에 빠진다. 그것은 김재경과의 삶이 “생활과 사랑”(212쪽)을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지숙의 맹시현과의 불륜은 애정형 불륜에서와 같이 사랑에 의해 매개된다기보다, 성적 욕망 추구의 성격을 띤다. 이지숙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는 이룰 수 없었던, 성적인 만족이 함께 하는 관계를 맹시현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애욕추구형 불륜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혼의 위기에 처하자, 이지숙은 자신이 “연애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었다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201쪽)한다. 이는 이지숙이 맹시현과의 불륜관계와 재력가인 남편 김재경과 이룬 가정을 두고, 결단코 후자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남편의 외면을 감수하는 형식적인 아내의 자리일지라도, “김재경 사장의 부인으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선망의 눈길이 모였던 그 자리”(334쪽)로 돌아간다. 이러한 선택은 이지숙 자신이 행한 것이라기보다 남성 불륜주체인 맹시현과 남편 김재경의 입장 표명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주목된다.<sup>26)</sup> 여기에서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행

26) 맹시현은 송가화와의 불륜의 여파로 처자와 연인 송가화까지를 잃는다. 이후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며 새로운 가족을 이룰 계획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맹시현에게 있어 이지숙은 육체적으로 매개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지숙은 불륜이 남편에게 발각되었을 때, 맹시현과의 불투명하면서도 암담한 미래, 그리고 만족스런 이성애를 구할 수는 없지만 풍요롭고 안정적인 남편 김재경과의 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갈팡질팡한다. 그녀는 결국, 맹시현의 결별 선언을 받은 가운데, 가정 내에서 최소 어머니의 자리만은 인정해 준다는 남편 김재경의 제안을 수락한다.

한 여성인물의 입지가 남성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삶을 갖는 남성인물과 달리, 여성인물이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입지만을 갖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의 끝은 이지숙의 경우처럼 명목상의 가족제도-내-아내/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기이거나, 『푸른 운하』의 경란처럼 가족제도-외부의 정부로 머물기이다. 따라서, 사랑이 아니라 이익·애육추구에 의해 매개된 이 유형의 불륜이 여성인물에게 갖는 의미는 가족제도 내에서 결핍된 요소를 채우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띠는 것에 머문다 할 수 있다.

『토지』에서 또한 이익·애육추구형 불륜관계가 나타나는데, 불륜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의 성격이 앞의 두 작품과 다르다. 『푸른 운하』의 경란은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창』의 이지숙은 성적 쾌락을 추구함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토지』에서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을 주도하는 홍성숙은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친일귀족의 자제인 조용하와 불륜관계를 맺는다. 초창기의 성악가로서 그 “희귀가치”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홍성숙은 조용하의 재력과 지위를 발판으로 성공하기 위해 조용하와의 불륜을 주도한다. “성악가로서 대성하고 싶은 욕망에는 조용하가 안성맞춤의 배우자이기 때문”(3부-4편-5장: 아침커피)이다. 홍성숙은 조용하와의 불륜관계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조용하에게 남편과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는 조용하와 재혼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지만, 조용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성이 가정 밖에서 활동하면 오해받는 일이 많고 구설에도 오를 수 있”(3부-5편-12장: 잘못된 계산)는 시대를 살아간 신여성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 홍성숙의 행보는 이러한 오해와 구설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을 파하고서라도, 불륜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바를 얻겠다는 홍성숙의 태도는 여성에게 사회 진출이 제한된 시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조용하와의 불륜관계가 결렬되자 홍성숙은 무골호인인 남편의 ‘아

내'로 돌아가며, “음악계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의 주체인 경란, 이지숙, 홍성숙 등의 여성인물들이 불륜관계를 이익·애육 혹은 사회적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은, 이들이 사회적-존재로서의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함과 관련이 있다.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을 주도하는 여성인물들은 가정 내에서 결핍된 요소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륜을 행하는 바, 여기에서 그들이 남성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지위를 결정 짓거나 만들어간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시도는 불륜이라는 한계를 갖기에, 가족제도와 충돌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한 번 가족제도-내-존재로서 제한된 여성인물의 입지를 보여준다. 애정형 불륜의 주체인 남성인물에게 있어 가정이 그들의 사회적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 남성인물들은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입지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삶을 영위한다. 이익·애육추구형 불륜은 이와 달리 여성인물들의 욕망 추구가 ‘불륜’을 수단으로 한다는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그들이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그들의 입지와 사회적-존재로서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매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 살필 ‘선택적 결혼’의 양상을 통해 이와 같은 측면이 지양(止揚)됨을 밝힐 수 있다.

### 3. ‘사랑’과 ‘결혼·가족’간 가치 분화와 여성인물의 ‘선택적 결혼’

지금까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불륜의 유형들을 통해, ‘사랑’과 ‘결혼·가족’간 가치가 관계 맺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혼사장애형 불륜은

‘사랑-결혼·가족’ 가치의 미분화, 즉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 추구에서 비롯하며, 이를 통해 낭만적 사랑이 제도권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근친형 불륜은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 추구가 가족제도 내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주도하는 형수(여성인물)를 통해 가족과 사랑 이외의 선택항을 갖지 못하는 여성인물의 입지가 가족제도-내-존재에 제한됨을 읽을 수 있었다. 애정형 불륜과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을 통해서도 남녀인물의 상이한 존재 지평이 그들이 행하는 결혼/불륜의 양상과 관련을 맺음을 논의하였다. 혼사장애형 불륜과 근친형 불륜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혹은 제도권의 금기를 위반하는) 사랑을 다룬다면, 애정형 불륜과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은 사랑부재의 가족제도를 문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랑’과 ‘가족(제도)’의 교집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불륜과 무관하며, ‘사랑-결혼·가족’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결혼’들을 통해, ‘사랑’과 ‘가족(제도)’의 가치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룸을 논의할 수 있다. 양자의 가치들이 분화(分化, 獨立)함으로써, 오히려 결혼관계를 통해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음을 살필 것이다. 본고는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 추구, 혹은 사랑 부재의 결혼과 대비되는 이와 같은 결혼을 ‘선택적 결혼’이라 칭한다. 이는 ‘사랑-결혼·가족’의 이항적 관계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가 더해진다는 점, 복수(複數)의 사랑을 수용한다는 점, ‘사랑’보다 ‘결혼·가족’의 가치를 우위에 둘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선택적’ 결혼이라 할 수 있다. 불륜관계를 낳는 결혼과 대비되는 ‘선택적’ 결혼의 이러한 측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인물의 입지 : 사회적-존재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함.
- 2) 사랑의 성격 :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에 대한 추구가 사라짐.  
동반자적 사랑<sup>27)</sup>의 발아(혹은 가능성).

3) ‘결혼·가족’의 의미 : ‘결혼·가족’ 자체가 목적이 됨.

이러한 점들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은 『재귀열』, 『표류도』, 『재혼의 조건』, 『녹지대』, 『단층』, 『토지』 등으로 박경리 문학 전반에 걸쳐 있다. 이들 작품에서 ‘선택적 결혼’이 주로 여성인물에 의해 주도되며, 이를 통해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함께 추구되거나, 어느 한편이 우선시 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sup>28)</sup>

1) 여성인물의 입지의 변화는 2) 3)의 ‘사랑의 성격’ 및 ‘결혼·가족’의 의미 변화와 관련을 맺는다. 불륜관계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사랑’과 ‘결혼·가족’ 이외의 선택항을 갖지 못함과 달리, 본 장에서 논의할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재생산의 성격을 띠는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를 갖는다. ‘사랑’과 ‘결혼·가족’ 이외에 ‘사회’라는 존재 지평을 가짐으로써, 문제가 되는 두 개의 가치 간 분화(分化)를 가능케 한다. 『재귀열』의 김난우는 올드 미스로서 조산원을 운영한다. 그녀는 한국전쟁 당시 애인 민석구가 자신을 버리고 월북한 이후 서상철의 편집적 외사랑, 사업가 김병후의 구애를 받지만, 모두 물리친다. 김난우의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언니 김송우와 대비된다. 김송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좌절되자, 자신을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불행을 겪는다. 이는 김송우가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관계가 어긋나자 자포자기식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김난우는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자, 사랑-결혼의 관계를

27) 여기에서 ‘동반자적 사랑’이란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복수(複數)의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결혼·가족되기’를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28) 여성인물이 이러한 ‘선택적 결혼’의 주제로 등장한 바, 본고는 이를 ‘사랑-결혼·가족’의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인 것으로 본다.

탈피하여 사회적-존재로서 삶의 지평을 유지한다. 이는 ‘선택적 결혼’의 바탕이 된다.

『표류도』의 강현희,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 또한 실패한 사랑을 딛고 일어서는 인물들인 바, 이는 이들이 사회적-존재라는 사실과 관련을 맺는다. 이들은 사회적 삶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이 반드시 결혼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여성인물의 사회적-존재로서 입지는 ‘사랑’과 ‘결혼·가족’의 이항적 관계에 개입하여 여성인물이 양자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고려토록 한다.<sup>29)</sup> 이는 『토지』의 최서희를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만주의 용정에서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거상으로 활약하던 때, 김길상과의 결혼을 결정한다. 최서희는 ‘사랑’의 대상인 이상현이 아니라, 재물을 모아 ‘가문’의 복원을 도울 수 있는 김길상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분화(分化)됨을 엿볼 수 있다.<sup>30)</sup> 최서희는 사회적-존재의 입장에서 가족제도-내-존재로서의 삶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토지』의 유인실은 ‘사랑’과 ‘결혼·가족’의 관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인물로서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한 재원인 유인실은 일본인 오가다 지로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결혼으로 맺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 유인실은 오가다 지로와의 사랑을 이어가지 않는 대신,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가다 지로에 대한 사랑을 시인한다. 이러한 유인실의 태도에는 민족의식이 개재한 것임을 『토지』는 잘 보여준다. 유인실의 오가다 지로

29) 이는 여성인물들이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추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여성들이 가정적 종속을 지향토록 한다. A. Giggins, *Op.cit.*, p. 109.

30) 이 부분에서 『토지』는 최서희의 김길상을 향한 ‘잠재된 애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서희의 편에서 김길상과의 결혼은 ‘가족’을 우선시한 것이지만, 사랑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이후의 서사에서 최서희는 김길상에 대해 부부애로 ‘성장하는 사랑’을 한다.

에 대한 사랑이 내포하는, ‘결혼·가족’과 ‘민족’이라는 상호 이반하는 가치 가운데 유인실은 후자를 ‘선택’한다. 유인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결단이 치열한 민족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주체적인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오가다 지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존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유인실은 아들이 탄생하였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가족되기’ 대신에 ‘민족’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유인실은 박경리 소설에서 가족제도-내-존재 지평 대신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삶의 지평을 선택한 유일한 여성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선택적 결혼’은 또한 2)의 사랑의 성격 변화와 3)의 ‘결혼·가족’의 의미 변화에 의해 가능해진다. 먼저 사랑의 성격 변화와 선택적 결혼의 관계를 논의하겠다. 선택적 결혼의 주체들은 “영원한, 하나뿐이며 유일한” 사랑을 고집하지 않는다. 즉,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복수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는 ‘사랑’이 ‘결혼·가족’의 가치와 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제도와 충돌하는 불륜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결혼·가족’과 결부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랑이 결혼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랑’과 ‘결혼·가족’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은 선택적 결혼을 가능케 한다. 선택적 결혼은 새롭게 ‘성장하는 사랑’ 혹은 ‘성장의 가능성을 갖는 사랑’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동반자적 사랑’이라 칭한다.

‘동반자적 사랑’과 ‘선택적 결혼’의 관계는 박경리의 초기 작품군에 속하는 『재귀열』에서부터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김난우와 민석구/

31) 이러한 유인실의 선택은 앞에서 살핀 바 있는 김환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유일한 대상에 대한 사랑에 좌절하였을 때, 더 이상 ‘가족’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서상철/김병후-하영민 등의 남성인물들이 맺는 쌍방적 혹은 일방적 사랑 서사가 나타난다. 김난우는 민석구와 이별한 후 서상철/김병후의 일방적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 『재귀열』은 이를 김난우의 민석구를 향한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 추구로 나타내 보이지는 않는다. 김난우는 자신의 이념을 좇아 또 다른 연인(동지)과 함께 북으로 간 민석구에 대해 배반감을 가질지언정 그와의 사랑을 ‘유일한 사랑’으로서 간직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연인을 잃었지만, 다른 남성인물의 ‘일방적 구애’에 흔들리지 않는 김난우의 자세를 통해 선택적 결혼의 가능성을 읽는다. 결국, 김난우는 하영민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바, 민석구를 향한 첫 사랑은 복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된다. 민석구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김난우의 이와 같은 선택은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독립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난우와 하영민은 만남과 이별을 겪은 후에 재회하여 결혼을 결정한다. 하영민은 김난우와 서상철·김병후 간의 관계보다 김난우의 민석구에 대한 마음을 우려하면서, 재귀열(再歸熱)이란 단어를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340쪽)는 의미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결혼에 ‘동반자적 사랑’이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표류도』의 강현회와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은 실패한 첫사랑과, 불륜의 사랑을 거쳐 동반자적 사랑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랑을 논의할 수 있다. 강현회는 한국전쟁 중에 동서생활을 하던 찬수와 사별하며, 이상현과의 불륜의 사랑은 파국으로 끝을 맺는다. 이후 강현회는 김환규와 결혼할 결심을 하는데, 현실적인 인물인 김환규는 강현회에게 있어서 찬수가 “지성의 대상”이라면, 이상현은 “감정의 대상”이며, 그 자신은 “의지의 대상”(10회, 152)임을 밝힌다. 강현회에게 있어 존재의미가 상이한 세 명의 남성인물들은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사랑(혹은 사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가운데 찬수, 이상현과 관계를 통해서 강현회는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를 분화하여 인식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sup>32)</sup> 이 두 개의 사랑에 이어, 강현회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하고 김환규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 여기에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랑의 가능성’이 자리한다 할 수 있다. 강현회가 지성의 대상인 찬수와 사랑에 이어, 감정의 대상인 이상현과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었듯이, 의지의 대상인 김환규와도 사랑을 키워갈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강현회를 사랑하는 김환규와, 김환규를 의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강현회의 결합은 선택적 결혼의 성격을 띠다 하겠다.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 또한 윤명환-남성우-이치영과의 관계를 통해,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당시 총살된 애인 윤명환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 유강옥은 윤명환의 집에서 처녀며느리로 7년을 보낸다. 시부모의 권유로 교사로 일하게 된 유강옥은 윤명환과의 사랑을 뒤로 하고, 남성우와 불륜의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바는, 유강옥이 “남성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허무를 본 것”을 “재혼의 조건”(233쪽)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분화됨을 읽을 수 있다. 유강옥은 남성우와의 불륜관계를 접고, 자신을 오랫동안 사랑해 온 이치영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유강옥-이치영의 관계는 유강옥이 윤명환, 남성우와 맺은 관계와는 상이하다 하겠다. 이치영과의 결혼을 유강옥의 편에서 볼 때, 이는 선택적 결혼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복수의 사랑을 경험한 바 있는 유강옥이 이치영을 향해 ‘성장하는 동반자적 사랑’을 가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토지』는 최서희의 김길상과의 결혼이 “야망의 수단”으로써, 즉 최참판가를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드러낸다. 이상현이 “사모(思

32) 강현회는 대학시절 각자 살 때보다 동서생활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찬수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찬수와 사별한 이후 미혼모가 된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현회와 찬수의 동서생활은 파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하겠다. 여기에서 ‘사랑’을 곧바로 ‘결혼·가족’과 연결 짓지 않는 사고를 읽을 수 있다. 강현회는 이상현과의 불륜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결혼·가족’으로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인다.

慕)와 기혼자(既婚者)”의 의미를 갖는다면, 김길상은 “야망(野望)과 하인(下人)”의 의미를 가짐이 직접적으로 언명된다.<sup>33)</sup> 그러나 『토지』는 김길상과의 결혼을 결단한 최서희의 내면에 “숙명적인 길상과의 애정”(2부-2편-8장. 심장을 쪼개어 바치리까)이 잠자고 있음을 내비친다. 여기에서 이상현과 김길상을 향한 두 개의 사랑이 최서희에게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자에 대한 사모(思慕)와 조력자에 대한 ‘사랑의 씨앗’은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후자는 ‘성장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최서희의 김길상과의 결혼은 선택적 결혼이라 할 수 있겠다. 『토지』는 최서희를 통해 ‘성장하는 사랑’의 양상을 보여준다. 김길상이 처음부터 최서희를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과 달리, 최서희는 김길상의 도움을 받아 최참판가를 복원코자 한 야망(“불순물”)이 섞인 감정을 가지고 김길상과 부부지간이 되지만, 추후 그녀는 남편 김길상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부애로 발전한 ‘동반자적 사랑’을 읽을 수 있다.

3) 한편, ‘결혼·가족’의 의미 변화 또한 선택적 결혼과 관련을 맺는다. 불륜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혼·가족’이 ‘사랑’의 필요조건이거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됨을 논의하였다. 이와 달리, 『표류도』, 『녹지대』, 『단층』, 『토지』 등의 작품들은 ‘결혼·가족’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결혼·가족’이 ‘사랑’의 가치보다 우위에 섬을 살필 수 있다.

‘결혼·가족’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삼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33) 이재선은 일찍이 『토지』를 ‘가족사소설’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필자는 다음의 논문에서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의 『격류삼부곡』을 ‘가족사소설’의 관점에서 비교한 바 있다. 이재선(1996), 「農耕의 想像力과 『土地』,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96쪽; 김은경(2009),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상실의 아픔을 갖는다. 『표류도』의 강현회는 연하여 결손가정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강현회의 아버지는 만주를 전전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녀 자신은 찬수와의 동서생활이 찬수의 죽음으로 끝맺음함으로써 미혼모가 된다. 이로 인해, 강현회는 생모와 이복동생, 그리고 사생아 혼아로 이루어진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다. 교통사고로 혼아를 잃기 전까지, 강현회는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서 탈피할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표류도』는 강현회에게 이상현과의 불륜의 사랑을 지울 만큼 강한 충격을 준 딸 ‘혼아의 죽음’이 강현회가 김환규와의 결혼을 결정하는 계기임을 보여준다. 강현회는 가족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사랑보다 ‘결혼·가족’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것이다. 김환규는 “황폐한 땅에 새로 집을 짓듯이 현회 씨는 또 어린애를 낳을 것”(10회, 152)라는 말로 강현회를 위로하는 바, 강현회에게 있어서 김환규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다 하겠다. 그녀가 이상현과의 사랑을 뒤로하고 김환규와의 결혼을 결심한 것은 사랑보다 ‘결혼·가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녹지대』의 윤은자 또한 가족상실의 경험을 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 양공주인 어머니가 자살한 것이다. 이처럼 훼손된 가정의 구성원인 윤은자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공부하는 박광수와 사귀지만, 양공주의 딸인 자신과 박광수가 맺어질 수 없으리라는 현실적 생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문기자 한철의 구애를 수락한다. 한철은 윤은자에게 ‘집’을 마련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양공주의 딸로서 불완전한 가정에서 살아 온 윤은자에게 있어 ‘집/가족’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할 수 있다. 윤은자가 박광수와의 첫사랑을 접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한철과의 결혼을 결단한 것은 사랑보다 ‘결혼·가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선택적 결혼이라 할 수 있겠다.

『단층』은 정노안-정근태-기표/기웅의 삼대의 부계 가족사를 뼈대로 전

개되는 작품이다. 정근태는 이른 나이에 정노인 주도하에, 가정의 주부를 얻기 위하여 옥이네와 결혼하지만 결혼 후,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명자를 사랑하게 된다. 정근태가 ‘수단’의 성격을 띠는 옥이네와의 결혼생활을 멀리하고, 명자에게서 사랑을 느끼기에 정근태-명자의 관계는 애정형 불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근태가 본처 옥이네와 이룬 가정을 지키고 동시에 명자에게도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앞에서 논의한 애정형 불륜과 양상을 달리 한다. 그 차이는 명자의 소생으로 옥이네 밑에서 성장한 장남 기표를 명자에게 돌려주는 데에서 나타난다. 명자-기표의 모자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은 전쟁으로 가족 전체를 잃고 ‘고아’의 삶을 살아온 명자에게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점에게 의미가 크다. 한편, 정근태에게 옥이네의 존재가 ‘가족’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명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정근태가 기표를 명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삼대의 가장으로서 굳건히 서게 됨은 ‘가족’ 자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상실의 아픔을 겪은 명자에게 또한 ‘사랑’의 완성 대신 모자가 이루는 ‘가족’을 이루어주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단충』이 ‘가족’ 자체에 큰 의미를 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집필시기(執筆時期)가 겹치는 『토지』와 무관하지 않다.

장르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토지』는 가족사소설의 특징 또한 갖는 바, 본고는 이에 주목한다.<sup>34)</sup> <최참판가 훼손 회복>의 서사구조는 『토지』의 근간을 이룬다. <회복>의 서사는 김길상과 최서희의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최참판가의 유일한 혈손인 최서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합은 ‘가족’, 나아가서 가문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우위에 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34) 필자는 다음의 논문에서 『토지』의 가족사소설로서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김은경 (2009),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鎭)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가족제도 내에 함께 함을 살폈다. 양자의 가치 간 분화를 거침으로써, 오히려 두 개의 가치가 제도권 내에서 공존하게 됨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 살핀 불륜관계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인물의 삶의 지평이 가족제도-내에 머문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근친형 불륜, 이익·추구형 불륜 등이 이러한 존재 지평을 왜곡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 혹은 부당하게 사회적-존재로서의 삶의 지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임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 살핀 ‘선택적 결혼’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혼의 주체는 여성인물이며, 그 여성인물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입지를 갖는다는 점이 결혼의 출발선상에 놓인다. 이러한 출발은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 간 분화를 가능케 한다. 박경리는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를 독립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혹은 후자의 가치를 우위에 둬으로써, 오히려 가족제도 내에서 양자의 가치를 함께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박경리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서사를 통해 박경리 문학의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랑서사란, 다양한 양태의 불륜관계와, 결혼·가족제도 내의 남녀관계를 포함한다. 이들 사랑서사의 양태들은 박경리 문학 전반에 걸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사랑서사를 통해 박경리 문학의 변화 양상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의 조합을 이루는 ‘사랑-결혼·가족’ 간 관계를 통해, 박경리가 보여주는 ‘현실에 대한 통찰’을 논의하였다. 사랑서사의 유형을 결정하는 이들 다양한 조합들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실현 불가

능한 낭만적 사랑, 사랑이 부재하는 가족제도 내부에 대한 비판,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함께 하는 바람직한 가족구성의 방안 등을 살폈다. 박경리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랑서사는 인류역사를 통해 함께 해 온 사랑과 가족제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들 사랑서사에 나타나는 ‘차이’들에 주목하였다. 이는 직선적으로 이행하는 변화양상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내-남성과 여성의 차이, 불륜관계를 낳는 결혼, 그리고 이와 구별되는 현실적 결혼의 실제 등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의 불륜관계를 통해 ‘사랑’과 ‘결혼·가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1) 혼사장애형 불륜은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는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과 결혼해야 한다는 입장, 즉 미분화(未分化)된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연인들이 주도하는 바, 이를 통해 박경리는 제도권에서는 ‘낭만적 사랑’이 실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2) 근친형 불륜은 가족제도-내-존재에 머무는 여성인물의 입지를 보여준다. 이는 미망인이 된, 혹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형수가 시동생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불륜인 바, ‘사랑’과 ‘가족’ 이외의 선택항을 갖지 못하는 여성인물의 실상을 보여준다. 3) 애정형 불륜과 이익·애욕추구형 불륜은 각각 가족제도-내-남편과 가족제도-내-아내 주도로 전개된다. 전자는 결혼이 사회적-존재로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남편이 불륜관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지만, 결국 가족제도 내로 회귀하는 플롯으로 전개된다. 후자는 불륜관계를 맺는 아내가 이를 물질적 풍요나 권력, 성적 쾌락, 사회적 성공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만, 결국 가족제도-내-존재로 돌아가는(혹은 정부가 되는) 플롯을 취한다. 이상의 불륜서사들을 통해 여성인물이 가족제도-내에 종속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선택적 결혼’을 통해 ‘가족제도와 사랑 간 교집합’이 이루어짐을 논의하였다. ‘선택적 결혼’이란, ‘사랑’과 ‘결혼·가족’의 가치가

분화됨으로써 실현된다. 이는 여성인물이 사회적-존재로서 가족제도-내에 종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더불어서, 복수의 사랑을 통해 ‘가족’과 분화된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가족’의 가치를 ‘사랑’ 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에 선택적 결혼이 이루어짐을 논의하였다. 선택적 결혼의 주체는 ‘낭만적 사랑의 단일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적-존재로서 ‘복수의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선택적 결혼의 주체는 가족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독립적인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택적 결혼을 통해, 오히려 가족제도 내에서 양자의 가치를 실현하게 됨을 논의하였다.

박경리는 불륜을 그린 서사를 통해서 가족제도의 존속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륜의 전복성 혹은 미화된 사랑과 거리를 둔 냉철한 사실주의적 시선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에는 가족제도-내-여성인물의 한계에 대한 통찰이 자리하는 바, 3장에서 논의한 ‘선택적 결혼’을 그린 서사를 통해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1959), 『표류도』, 현대문학.
- \_\_\_\_\_ (1962), 『김약국의 딸들』, 을유문화사.
- \_\_\_\_\_ (1978), 『나비와 엉겅퀴』, 범우사(원제 : 죄인들의 숙제, 경향신문, 1969).
- \_\_\_\_\_ (1980), 『애가』, 『박경리문학全集』 9, 지식산업사(민주신보, 1958).
- \_\_\_\_\_ (1980), 『재귀열』, 『박경리문학全集』 10, 지식산업사(주부생활, 1959).
- \_\_\_\_\_ (1980), 『성녀와 마녀』, 『박경리문학全集』 12, 지식산업사(여원, 1960~1961).
- \_\_\_\_\_ (1980), 『가을에 온 여인』, 『박경리문학全集』 8, 지식산업사(한국일보, 1962~1963).
- \_\_\_\_\_ (1980), 『재혼의 조건』, 『박경리문학全集』 10, 지식산업사(여상, 1962~1963).
- \_\_\_\_\_ (1980), 『창』, 『박경리문학全集』 15, 지식산업사(조선일보, 1970).
- \_\_\_\_\_ (1981), 『Q씨에게』, 지식산업사.
- \_\_\_\_\_ (1982), 『내 마음은 호수』, 『박경리문학全集』 17, 지식산업사(조선일보, 1961).
- \_\_\_\_\_ (1986), 『단층』, 『박경리문학全集』 18, 지식산업사(동아일보, 1974).
- \_\_\_\_\_ (1987), 『영원한 반려』, 『박경리문학全集』 21, 지식산업사(원제: 신교수의 부인, 조선일보, 1967).
- \_\_\_\_\_ (1988), 『푸른 운하』, 『박경리문학全集』 20, 지식산업사(국제신보, 1961).
- \_\_\_\_\_ (1996), 『토지』 1-16권, 솔출판사.
- \_\_\_\_\_ (2011), 『녹지대』, 현대일보(부산일보, 1965).

## 2. 연구자료

### 2.1. 논문

- 김은경(2000), 『『토지』서사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_\_\_\_\_ (2008), 「박경리 문학 연구 -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_\_\_\_\_ (2009), 「박경리의 <토지>와 바진(巴金)의 『격류삼부곡』 비교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 \_\_\_\_\_ (2010),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 -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5.
- 김종엽 역(1995), 「프로이트와 현대성」,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 김치수(1982),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恨」,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 서영채(2002), 「韓國 近代小說에 나타난 사랑의 樣相과 意味에 관한 研究 : 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우찬제(1995), 「지모신(地母神)의 상상력과 생명의 미학」, 『한·생명·대자대비-토지비평집 2』, 솔.
- 유종호(1982),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 이금란(2003), 「가족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구-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9.
- \_\_\_\_\_ (2006),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 이재선(1996), 「農耕的 想像力과 『土地』」,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 채희운(1995), 「『토지』에 나타난 간통(姦通)의 생태학」, 『한·생명·대자대비-토지비평집 2』, 솔.

### 2.2. 단행본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 김윤식·정호웅(1999), 『韓國소설史』, 예하.
- 이덕화(2000), 『박경리와 최명화-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이승희 역(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 엥겔스, F., 김대웅 역(1999),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도서출판 아침.

Freud, S., 김종엽 역(1995), 『토텐과 타부』, 문예마당.

Giddens, A., 배은정 · 황정미 역(2003), 『현대 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새물결.

Lerner, Gerda, 강세영 역(2004),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Luhmann, N.(2003), *Love as Passion -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Stanford Univ.  
Press.

Tanner, T.(1979), *Adultery in the Novel-Contract and Transgression*,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원고 접수일: 2012년 5월 2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

The Narrative of 'Love' and  
the Literature of Park Kyung-ri

Kim, Eun Kyung

In this essay, I discuss the fact that 'love between a man and woman' is of great importance in the novels of Park Kyung-ri. The fact that the narrative of 'love' includes extra-marital affairs and marriage relationships shows the viewpoint of the author which is based in reality. The various relations of love and marriage (family), poses problems on love itself, the family system, and marriage.

I discover four kinds of extra-marital affairs in the novels of Park Kyung-ri which illustrate the intricate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1) extra-marital affairs derived from marriage disorders, 2) extra marital affairs between close relatives (elder brother's wife and brother-in-law), 3) extra-marital affairs based on mutual feelings of love between the subjects of adultery, and 4) extra-marital affairs that pursue benefit and lust. Type 1) shows that 'the exclusiveness of romantic love', meaning that only love can lead to marriage, can not be tru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institution. In type 2), the elder brothers' wives lead the adultery

with their brothers-in-law. The elder brothers' wives who are widows or do not love their husbands (i.e. do not receive their husband's love) recover the damaged relationship of 'love' and 'marriage (family)' in the family system. Types 1) and 2) result from the undifferentiated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marriage (family)'. Types 3) and 4) show how loveless marriages bring about adultery. In type 3), the husbands who married as a means of social success fall in love with the adultery subject. In type 4), the wives form the adultery relationship as a means of enjoying material, emotional and sexual pleasure, and exercising power. Through these narratives of adultery, the author shows the limitations of 'romantic love' and criticizes loveless marriage. And she also shows the position of the female character that remains within the family system. These issues are discussed in Chapter 2.

In Chapter 3, I discuss the issue of 'selective marriage'. The four types of extra-marital affairs do not derive from an intersection between love and the system of family. With selective marriage comes a true harmonization of love and the system of family, by differentiating the two values of 'love' and 'marriage (family)'. The aspects facilitating 'selective marriage' are as follows: 1) the female character has the position of a social being that does not stay within the system, 2) the characters accept the plural loves that are growing loves (or possibly growing loves), which I call the 'love of companion', and 3) characters who experience the unnatural death of family put 'marriage (family)' above 'love'.

Through these discussions, I can reveal that 'the narratives of love' represent the problem of 'love' and 'marriage (family)' in keeping with the realistic view. Park focuses on the continuation of the system of

family through the narrative on extra-marital affairs. The novels of Park do not contain an overthrowing of the nature of the affairs or a beautification of love. They contain, rather, her insights on the limitations of female characters in the family system. This essay suggests that 'selective marriage' is a feministic alternative to this.